

인천이라는  
지도를  
들고  
소셜 속의 인천  
양진채 산문

인천이라는 지도를 들고 (양진채, 2021)

인천





이제부터는 '이제'가 아니라 '지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이고, '지금'은 현재를 살아가는 표현입니다. '이제'는 '이제야'라는 표현과도 연결됩니다. '이제야'는 '이제'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야'라는 표현입니다. '이제야'는 '이제'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야'라는 표현입니다. '이제야'는 '이제'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야'라는 표현입니다.



이제야(이제야, Sunwoo Eunsil)

이제야는 '이제'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야'라는 표현입니다. '이제야'는 '이제'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야'라는 표현입니다. '이제야'는 '이제'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야'라는 표현입니다. '이제야'는 '이제'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야'라는 표현입니다.